

[강의계획안] 철학과 예술의 변화로 읽는 현대정신의 계보: 고정된 진리에서 다원적 창조로

1. 강의 개요 (Lecture Overview)

현대 사회를 부유하는 파편화된 가치들 속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대정신'의 뿌리를 추적하는 인문학적 고고학이 필요합니다. 본 강의는 중세의 신학적 권위와 근대의 이성 중심주의가 어떻게 해체되었으며, 그 균열 사이에서 현대의 '실존'과 '다원성'이 어떻게 발아했는지 탐구합니다.

철학적 사유의 전이가 예술의 붓질과 건축의 구조물에 남긴 흔적을 분석함으로써, 학습자가 고정된 진리의 수동적 수용자에서 자기 삶을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주체로 거듭나도록 돕는 것이 본 과정의 핵심 설계 목적입니다.

- 강의명:** 철학과 예술의 변화와 현대정신 (부제: 고정된 진리에서 다원적 창조로)
- 교육 대상:** 인문학적 통찰력을 원하는 성인 학습자 또는 관련 전공 대학생
- 총 소요 시간:** 4 시간 (집중 심화 과정)
- 학습 목표:**
 -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는 철학적 패러다임의 단절과 계승 과정을 '세계관의 전이'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 철학적 개념(이데아, 이성, 실존 등)이 예술 및 건축 양식(고딕, 원근법, 아방가르드 등)과 결합하는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
 - '수신자 중심의 해석학'과 '리좀적 사유'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도덕적 자율성과 삶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다.

2. 교수 내용: 시대별 패러다임 심층 분석 (Teaching Content)

인간의 정신사는 보이지 않는 사유가 보이는 형상으로 육화되는 과정입니다. 돌을 쌓아 올린 성당과 캔버스의 구도는 단순한 미학적 선택이 아니라, 당대 인류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교한 지도입니다.

2.1. 중세 (God-Centered): 수직적 권위와 이데아의 그림자

- 철학:**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현상 세계'의 이분법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치환했습니다(Slide 3~5). 진리는 신적 권위로부터

주어지는 빛이며, 인간은 그 빛을 반사하는 불완전한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탐구의 대상은 실재가 아닌 '권위'였습니다.

- **예술/건축:** 고딕 양식의 노트르담 대성당(Slide 19)은 하늘을 향해 솟구친 첨탑을 통해 신의 영광과 인간의 미약함을 대조시킵니다. 성당의 조각과 벽화는 문맹인 대중에게 신의 질서를 주입하는 시각적 권위로 기능했습니다.

2.2. 근대 (Human-Centered/Reason): 이성의 오만과 합리적 기계론

- **철학:** 주체로서의 '인간 이성'이 신의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계몽주의는 이성을 통해 이상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펼쳤으며, 과학적 인식론은 인식의 주체와 객체가 동일하다는 '절대 진리'의 환상을 심었습니다(Slide 53).
- **예술/건축:** 라파엘로의 원근법(Slide 9)은 이성적 질서로 세계를 포착하려는 근대인의 욕망을 반영합니다. 건축에서는 르 코르뷔지에의 '살기 위한 기계로서의 집'(Slide 23)과 미스 반 데어 로에의 합리적 마천루(Slide 25)가 정점을 이룹니다. 그러나 가우디의 유기적 건축(Slide 22)은 이러한 경직된 합리성에 균열을 내는 예술적 저항의 시작이었습니다.

2.3. 현대 (Existence/Pluralism): 부조리에 대한 반항과 다원적 창조

- **패러다임의 붕괴:** 두 차례의 세계대전(Slide 33)은 근대적 이성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합리성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실존'의 문제로 회귀하게 했습니다.
- **철학적 전회:** 니체는 '신의 죽음'을 통해 타율적 도덕을 해체하고 '권력에의 의지'를 통한 가치 창조를 역설했습니다(Slide 3840).— 사르트르는 ~~본질이 정해지지 않은 인간의 자유를, 카뮈는 세계의 무의미(부조리)에 맞서는 '창조적 반항'을 제안했습니다(Slide 4546).~~
- **해석의 혁명:** 롤랑 바르트의 '작가의 죽음'(Slide 49)은 텍스트의 의미가 발신자의 의도가 아닌 수신자의 해석에 의해 비로소 완성됨을 선포했습니다(Slide 50~51). 이는 수직적 위계의 '수목(Tree)' 체계가 해체되고, 수평적이고 다발적인 '리좀(Rhizome)'적 연결망으로의 이행을 의미합니다(Slide 48).

핵심 메시지: "절대적 진리의 신화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해석과 의지로 자신만의 세계를 조각하는 '주체적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3. 교수 방법 및 도구 (Methodology & Tools)

본 강의는 지식의 전달을 넘어, 학습자의 인식론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감각적 체험과 논리적 추론을 병행합니다.

- **시대별 비교 강의:** 54 장의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신의 눈(중세) - 주체의 눈(근대) - 파편화된 시선(현대)’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추적합니다.
- **현상학적 감상법:** 존 케이지의 ‘4 분 33 초’(Slide 17)와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통해, 예술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우연성’과 ‘수신자의 참여’로 완성되는 과정을 몸소 체험합니다.
- **코나투스 마인드 맵:** 스피노자의 ‘코나투스(Conatus)’ 개념(Slide 36)을 활용하여, 외부의 억압에 저항하고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자신의 내적 동력을 시각화하는 활동지를 작성합니다.
- **심층 토의:** “이성적 합리성이 붕괴된 전후(戰後) 상황에서, 카뮈의 ‘반항’이 어떻게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창조적 행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합니다.

4. 단계별 시간 계획 (Detailed Time Plan)

학습의 흐름은 ‘익숙한 사유의 해체’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가치의 정립’으로 나아가는 4 단계 전략을 취합니다.

| 단계 | 시간 | 주요 교육 내용 | 활용 슬라이드 |
|------|------|--|----------------------|
| 도입 | 30 분 | 철학적 사유의 필요성: "생각하는 거 그만둘까?"라는 질문을 통해 일상의 매너리즘을 파괴하고, 시대적 좌표 확인의 중요성 역설 | Slide 1 ~ 6 |
| 전개 1 | 90 분 | 절대 진리의 시대: 플라톤의 동굴 비유부터 중세 고딕 성당의 수직적 권위, 르네상스적 이성이 구축한 원근법적 세계관 분석. 가우디의 건축을 통한 근대성 비판의 시작 | Slide 7 ~ 26 |
| 전개 2 | 90 분 | 이성의 붕괴와 실존의 발아: 제 2 차 세계대전(Slide 33)의 참상이 가져온 근대성 비판. 니체의 권력에의 의지, 카뮈의 부조리와 반항. 수목적 체계에서 리즘적 체계로의 전이(Slide 48). 노에마(Noema)와 노에시스(Noesis)의 역학 관계(Slide 52) | Slide 30 ~ 52 |
| 정리 | 30 분 | 다원적 진리관의 정립: 모네의 '차이와 반복'(Slide 47)을 통한 현대 인식론 요약. 과학적 인식론(절대 진리)과 현상학적 인식론(해석적 진리)의 대비(Slide 53, 54)를 통한 현대정신 내면화 | Slide 28, 29, 53, 54 |

5. 평가 및 피드백 (Evaluation & Feedback)

인문학 교육의 최종 평가는 시험지가 아닌 학습자의 '변화된 시선'에 있어야 합니다.

- **개념적 이해도 확인 (Review):** “근대의 ‘이성’은 세계를 소유하려 했으나, 현대의 ‘해석’은 세계를 구성한다”는 명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 서술합니다.
- **실천적 액션 플랜 (Action Plan):** 니체의 "자신의 규범을 창조하라"는 명령에 따라, 타인의 시선이나 관습적 도덕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에의 의지'로 결정할 삶의 과제 한 가지를 설정합니다.
- **해석적 권한 강화:**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자가 단순한 청강자가 아닌, 강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 대입하여 재구성하는 '수신자로서의 독자'임을 명확히 인지시킵니다.

최종 마무리: 우리는 이제 '발신자의 의도'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끝내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라는 텍스트를 스스로 써 내려가고 해석하는 유일무이한 창조자가 될 것입니다. 다원적 진리의 바다에서 여러분만의 리즘을 힘차게 뿜어 나가십시오.